

 국토교통부		보도해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0. 01(화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헌정, 사무관 허원석 • ☎ (044) 201-3938, 3949
	한국철도공사 국제협력처		• 처장 조진환, 부장 김원웅 • ☎ (042) 615-3900, 3907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는 철도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하였고 외교적 결례도 없었습니다.

- 2019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(9.4)에 한국철도공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비취질 수 있고, 외교적 결례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보도내용(10.1)은 사실이 아닙니다.
-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는 국토부가 매년 9월경 개최하는 글로벌협력인프라컨퍼런스의 한 세션으로 개최기로 올해 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며,
 - 세미나 준비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하여 왔습니다.
 -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였고, 세미나에는 국제협력분야 부서장(1급)이 참석하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.
- 또한, 본 국제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관한 행사로서 관계국 정부기관, 국제기구, 연구소, 대학의 전문가가 참석하였습니다.
 -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이 러시아 차관, 몽골 차관 및 중국의

고위급 정부 대표단을 맞이하는 등 외교적 결례로 간주될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

- 본 행사에서는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러시아와 몽골의 정부관계자, 중국·한국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, 일본의 전문가 및 세계은행·광역두만강개발 등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,
-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설립에 대하여 참석한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의 지지를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[아시아경제, 뉴시스 10.1.(화)] >

- ◆ “양꼬 빠진 국토부 국제행사…文대통령 동북아 철도구상 시작부터 삐걱”,
윤영일 “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‘반쪽 행사’ 전략…시작부터 삐걱”
 - 9.4. 국토부 주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한국철도공사 불참
 -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외교적 결례로 볼 수 밖에 없음

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허원석사무관(☎ 044-201-39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